

## 본문에서 발견하기

-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_\_\_\_\_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자비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_\_\_\_\_
-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_\_\_\_\_
-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_\_\_\_\_
- 우리를 구원하신 주체는 누구입니까?  
\_\_\_\_\_
-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_\_\_\_\_
-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_\_\_\_\_

## 적용하기

-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행동이나 태도는 무엇입니까?
-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2:4-6)

-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단순히 '공홀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홀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홀이 넘치도록 가득한 분.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 공홀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그 근거를 밝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공홀은 크신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로 앞에서 묘사한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어 있는 자.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허물로 죽었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반응하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져도 감동받지 못하며, 결국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흐름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 첫째,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어 있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 둘째,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 셋째,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안식의 자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자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심도, 일으키심도, 앉히심도 —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연합됨으로써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죄 앞에서 감각이 느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 안에 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은 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게 됩니다.